서효인의 '소설처럼'



지난하고 비밀스러운 자기 자신 되기

-김병운, '아는 사람은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

코로나19를 두고 방역 당국은 이러한 평가를 했다.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문장 그대로 이 전염병의 힘은 막강하여 30만 명의 희생 자를 냈고, 의료 체계는 물론 세계 경제 전반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절 체절명의 상황에서 단 한 번의 락다운이 나 도시 봉쇄 없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바 이러스를 제어해 온 우리 사회의 저력이 새삼 놀랍다.

5월 연휴를 앞두고 10명 이하로 떨어 진 하루 확진자 숫자에 조금 들떴던 것도 사실이다. 마침 정부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를 발표했다. 이대로라면 바이러스 는 종식되고 잃었던 우리의 일상도 되찾 을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우리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의 경고를 무시 했던 것이다.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조 금씩은 방심했는지도 모르겠다. 확진자 숫자가 떨어져 갈 즈음 기업과 유흥 시설 이 몰려 있는 곳마다 사람이 넘쳐났다. 좁은 테이블에 붙어 앉아 식사를 하고, 그중 누구는 술을 마셨고, 또 누구는 노

래방이나 클럽에 갔을 것이다. 설마, 하 는 마음이었겠으나, 결과는 그 마음의 허 술함을 배신하곤 한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의 유행은 다행히 대구 신천지나 구로 콜센 타에서의 전염에 비해 그 강도가 덜했 다. 아마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바이 러스를 멀리하는 생활 습관이 자리 잡았 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 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도리어 막대 한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연대할 것인가, 혐오할 것인가 하는 양자 택일의 질문이기도 하다.

이태원발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낙 인찍기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 부 언론에서는 방역과는 상관없이 해당 클럽 이용객의 성적 지향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성소수자 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고, 이는 K-방역 이 자랑하는 '추적, 검진, 격리'의 모델 에 큰 방해가 되었다. 바이러스는 성별과

다. 그것을 가르고 차별하는 것은 인간이 다. 모두가 힘들 때 클럽에 간 행위는 마 땅치 않으나, 지탄받아야 할 건 행위이지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수자의 존재가 필요에 따라 지워지고 때로 부각 되는 것을 자주 봐 왔다.

신인 작가 김병운의 첫 장편소설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 는 '아웃팅'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소 수자의 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의 두려움 과 '커밍아웃'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유명 배우의 이야기다. 어느덧 한국문학 에서의 '퀴어 서사'는 더 이상 그 모티브 만으로는 주목받기 어려워졌다. 이 소설 의 미덕은 그저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자 기 고백적 서술이 아닌 성공적인 캐릭터

형상화를 통해 펼쳐 보였다는 데 있다. 공상표에게는 엄마와 누나, 애인은 물 론 직업적 욕망과 불안감도 있다. 그리고 조금은 다른 성적 지향이 있다. '조금은 다름'을 말하지 못해 예명 공상표, 본명 강은성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다. 그의

인종, 빈부와 성적 지향을 가리지 않는 필모그래피의 빈 곳은 그가 그토록 바라 던 '자신-되기'의 지난하고 비밀스러운 과정이다. 때로 어떤 이의 과정은 그 사 람의 모든 것이 되고는 한다. 공상표, 아 니 강은성처럼.

> 사회적 거리 두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연대의 힘을 믿어야 가능하다. 접촉의 행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진단을 받 아야 한다. 전파의 우려가 있다면 그가 누 구든 격리해야 한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전염과 면역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닌 사 람으로 대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가 자랑했던 방역 시스템이 남길 무리한 사생활 침해라는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

강은성의 연대는 사후적으로 일어난 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커밍아웃이 그의 용기를 북돋는다. 또한 그만큼 사랑하던 사람을 잃고 나서야 힘을 낼 수 있었던 일이기도하다. 과연 강은성은 배우 공상 표로서 커리어를 이어 나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이 된 이후에도 그에게 사람들 은 손을 내밀까. 그리 되길 애써 바랄 뿐 〈시인〉

社說

가동 중단 3년 한빛원전 과연 안전한가

영광 한빛원전은 부실시공의 대명사처 럼 여겨진다. 모두 6기 중 절반인 3기가 부실시공으로 인해 가동 중단 상태이거 나 공극이 발견돼 예방 정비를 받고 있으 니 그럴 만하다.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 가동을 중단 한 이후 3년째, 한빛 3호기는 2018년 5월 이후 2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다. 3·4호기 의 격납건물에서 대형 공극(구멍)이 발 견됐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공극 만 264개로 전국 원전에서 발견된 공극 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원전의 격납건물 두께는 1 m 20 cm~1 m60cm인데 4호기에선 깊이가 1 m57cm 에 달하는 공극도 발견됐다. 최근에는 한빛 5호기의 원자로 헤드에서 미세 균 열 등이 발견돼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 자력(한수원) 측이 예방 정비를 진행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부실시공의 흔적이 끊이지 않고 발견되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한수원이 주민 안전을 위한 근 본적인 처방을 내놓기보다는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만 골몰하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현재 한빛 3·4호기에 대한 구조 건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 극이나 철근 노출 등 현재 상태의 구조물 이 설계기준을 만족하는지 평가하고 평 가 결과에 따라 보수 방안을 수립하기 위 한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핵 없는 세상을 준비 하는… 광주비상회의'는 구조 건전성 평 가를 두고 재가동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 는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구 조건전성 평가를 부실시공 책임자인 설 계·시공 당사자들이 한다는 것은 객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최근 밑그림이 나온 정부의 제9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빛 3호기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될 국내 11 기의 원전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 정밀 조사를 거쳐야겠지만 만약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과감한 결단 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전남 도내 공공시설 내진율 최하위라니

지난 4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해남에서 는 최대 규모 3.1에 이르는 지진이 70여 차레나 발생,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전남 지역에서도 지진 발생이 늘고 있지만 도내 공공시설물의 내진(耐震) 확보 비율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일 의원 (해남1)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남 지역 공공시설물 2501곳 중 내진 확보 건 물은 36.9% (924곳)에 불과했다. 공공시 설 세 곳 중 한 곳 정도만 내진 설계 기준 을 확보한 것이다. 이 같은 전남 지역의 낮은 내진율은 전국 17개 시도 평균 58.2%에 비해 훨씬 못 미치며, 강원 (34.1%)과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88.7%로 가장 높았 고 광주는 68.1%가 내진 확보 건물로 조 사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10년간 규모 2.0 이 상의 지진이 신안에서 30건, 여수에서도 17건이나 발생하는 등 전남에서도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평소 별 이 상이 없었던 해남에서 지진이 보름간의 짧은 기간 동안 74차레나 집중 발생한 것 은 매우 이레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그제 도정 질의에 서 "전남 지역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영광 한빛원 전과 영산강 하굿둑 등 주요 시설물에 대 한 지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내진율이 낮은 이유로 상당수 공공건물 이 내진 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점을 들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다른 시도도 마 찬가지일 것이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예방 이 중요하다. 전남도는 전남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 고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서둘 러야 한다. 더불어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 인 교육과 방재 훈련 등 지자체 차원의 지 진 대응 체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영상 기술과 치과 진료



김진수 조선대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 교수

우리는 일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정 보 통신 기술(ICT)의 융합으로 4차 산 업 혁명이라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기술을 의료 분야에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진행 되고 있다. 치과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 치과 수복물이나 보철물을 제작 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상실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해서는 보 철 치료를 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임 플란트를 이용해 보철 치료를 하고 있 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임플 란트를 심을 수 있는 턱뼈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야 하 고, 주위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의 위치와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남은 턱뼈에 몇 개의 임플란트를 어디에

심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임플 란트 시술 후에 나타나는 가장 많은 부작 용은 신경을 건드려 발생하는 감각 이상 이 대부분이다. 턱뼈를 벗어나 임플란트 가 심어지거나 위턱에 있는 상악동이라 는 공간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 다.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해 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임플란트 시술 계획을 세우고 수술을 할 때 턱뼈와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진 단 영상(X선 사진 또는 방사선 영상)을 이용해야 한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진단 영상은 입안에 필름이나 센서를 넣고 촬 영하는 구내 방사선 영상, 위아래 턱뼈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파노라마 방 사선 영상, 위아래 턱뼈와 주위 해부학적 구조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CT(전산 화 단층 영상)나 콘빔 CT 등을 이용하고 있다.

구내 방사선 영상이나 파노라마 방사 선 영상은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진단 영상으로 치아와 그 주위 해부학 적 구조를 보여 주어 치과 치료에 필요 한 정보들을 준다. 그렇지만 평면적인

형태 만을 보여줄 뿐,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필요한 입체적인 형태를 보여주 지 못하기 때문에 입체적인 형태를 보 여주는 CT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

CT 영상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진단 영상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해부학적 구 조를 보여주며, 유일하게 컴퓨터 프로그 램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해부 학적 구조의 입체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치과에서는 일반 CT보다는 치과용 CT라고도 하는 콘빔 CT를 활용하는 것 이 훨씬 효과적이다. 콘빔 CT는 일반 CT 보다 X선 노출량을 적게는 10분의 1에서 많게는 1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 으며, 해상도가 뛰어나 치과 진료에 적합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 기 위해, 콘빔 CT를 촬영해 얻은 진단 영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가상 시 뮬레이션을 이용해 임플란트 수술을 연 습하거나 보철물을 제작해 볼 수 있고, 수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술용 가이드 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해부학적 구조를 보

여줄 수 있는 진단 영상이 필요하다.

조선대 치과병원은 2005년 치과대학 병원 최초로 전자 의무 기록(EMR), 의 료 영상 전달 시스템(PACS)을 동시에 설치하여 치과 진료에 전산 시스템을 이 용했고 당시에 최고 사양이었던 일본 히 타치사의 콘빔 CT를 설치하여 구강 질 환의 진단, 교정 진단, 악교정 수술, 그리 고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질이 좋은 진 단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다른 콘빔 CT 촬영기보다 영상 폭이 넓고 해상도 가 뛰어난 장비였으며, 국내 치과병원에 서 가장 먼저 도입해 사용했다.

조선대 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에서는 최상의 진단 영상을 만들기 위해 최신의 장비를 도입해 왔으며, 현재는 2대의 콘 빔 CT를 설치하여 치과 질환의 진단, 교 정 진단이나 턱관절 장애 진단, 임플란트 를 위한 턱뼈의 분석과 심은 후 평가 등 에 사용하고 있다. CT 영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으로 임플란트 를 턱뼈에 위치시켜 볼 수 있고, 수술에 필요한 가이드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최신 장비를 통한 질 좋은 진단 영 상은 임플란트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결 정적인 요소이다.

기 고

다시 찾아온 5월에 부쳐



노영기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해마다 5월이 찾아오면 광주·전남은 몹시 아프다. 그날의 기억, 쓰러져 간 오 월 영령들, 계속되는 왜곡과 도발에 더욱 아프다. 사람으로 치면 불혹(不惑)이 되 어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나 이임에도 그렇지 못하다.

올해 처음으로 세계기록유산이 광주 를 떠나 서울로 갔다. 5월 13일부터 광화 문 앞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5·18 40주년을 기리는 특별전 '오월 그 날 다시 오면'이 열리고 있다. 그 제목에 눈이 간다. 번안곡인 '오월의 노래 2'의 후렴구이다. 그 노래는 '꽃잎처럼 금남 로 뿌려진 너의 붉은 피'로 시작한다.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놀라면서도 다 른 한편으로 '에이 설마'했다. '국민의 군대'가 국민들을 상대로 어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 도 모른 채 희생됐다. 희생자들은 어린 뒤로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며 5·18 관련 자료와 사람들을 보고 만났다. 그리고 다 시 놀랐다. '설마'했던 노래의 가사가 사 실(事實)이며, 사실(史實)이어서다.

40년 전 5월 광주에서는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이 이어 졌다. 5월 18일 시작된 공권력의 폭력과 야만은 시간과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았 다. 전남대에서 시작되어 금남로, 충장 로, 조선대 등 광주 시내 곳곳에서 국가 는 글로 옮기기 힘든 폭력을 저질렀다. 그 누구도 말리기 쉽지 않았다. 5월 19일 오후 계림동에서 발사된 군의 총격은 장 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5월 19일 계 림동, 5월 20일 광주역, 5월 21일 금남 로와 중흥동, 광주교도소,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주남마을, 화정동, 광주교도소 부근, 송암동 등등 광주 외곽에서 군의 사격은 멈추지 않았다. 부처님의 자비가 넘쳐야 할 초파일 한낮 금남로에서는 군

그리고 5월 27일 전남도청과 전일빌 딩, YWCA, 광주공원을 비롯한 광주 시 내 전역에서 군은 국민들을 상대로 전투 를 치렀다. 그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이유

아이에서부터 임산부, 50대 엄마, 청년 등 다양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 켜야 할 군이 그와는 정반대로 행동했 다. 5월 22일 광주시 외곽을 둘러싼 군의 봉쇄선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되어 광 주를 드나드는 시민들에게 발포하고 그 억울한 죽음마저 왜곡했다. 노랫말은 거 짓이 아니었다. 현실은 오히려 더 처참하 고 잔혹했다.

'오월의 노래'를 들으며 들었던 또 다 른 의문은 '그럼에도'였다. 시민들은 대 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에 거의 맨손으 로 맞서고 총 쏘는 군대에 맞서 총을 들 었다. 어쩌면 예고된 패배의 순간에도 무 기를 내려놓지 않았다. 정부, 정확히 신 군부는 그들을 '폭도'라며 의롭고 외로 웠던 그날들의 항쟁을 '폭동'과 '내란'으 로 각색해갔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이 실행됐고, 광주의 시민들은 '폭도'로 매도됐다. 5월 27일 새벽, 찢어 드는 듯 계속되는 총소리를 들으며 광주 시민들 은 피울음을 삼켜야 했다.

어쩌면, 이 땅에서 다시 인권과 민주주 의를 이야기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 다. 하지만 사람들은 좌절하지도 무릎 꿇

지도 않았다. 공권력에 가로 막힌 망월동 에 찾아가고 살아남은 부끄러움을 안고 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오월 영령들 이 미처 이루지 못한 꿈들을 이루려고. 쉽 지 않은, 어쩌면 또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 는 싸움임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국가 폭력에 대항하며 함께 어깨를 걸고 싸웠듯이 그날의 경험 과 기억을 잊지 않았다. 마침내 그날 '국 민의 군대'를 광주로 보냈던 자들에게 죄 를 묻고 처벌했다. 그러나 이내 풀려난 자 들은 40년 전의 거짓을 확대 재생하고 있 다. 선부른 용서와 화해는 과거를 왜곡할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왜곡한다.

40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 5·18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그날의 연대의 기억을 떠올린다. 코로나19로 대 구가 어려워졌을 때 빛고을은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1980년 5월 의 또 다른 모습이다. 어려움에 처한 이 웃과 함께하는 것이 5월의 정신이다. 주 먹밥을 나누고 피를 뽑으며 이웃과 함께 했다. 여러모로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사 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다시 그날의 소중함을 간직한 채 새로운 40년을 준비 해야할 때이다.

無等鼓 🥠

애도와 기억

잔잔한 기타 연주에 맞춰 한 여자가 노 래를 부른다. 베네수엘라 가수 솔레다드 브라보다. 내게는 낯선 그녀가 부르는 노 래는 '사령관이여 영원하라'(Hasta Siempre Commandante). 가사를 모 르고 들어도 애조 띤 선율과 맑은 목소리 가 마음에 와닿는 이 노래는 가사 속에 등 장하는 한 단어 덕분에 '잊히지 않는 곡' 이 됐다. 바로 '체 게바라'.

'체 게바라여 영원하라'로 불리기도 하 는 이 노래는 쿠바 음악인 카를로스 푸에 블라가 작곡했다. 사르

트르가 '20세기 가장 완 전한 인간'이라 칭했던 체게바라는서른아홉의

나이에 볼리비아에서 총살당했다. 이후 이 노래는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노래 가 되어 존바에즈 등 많은 가수들이 불렀 다. 번역된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 "우리의 지도자 체 게바라여!/ 여기 당신 의 존재가 갖는 선명하고 깊은 투명함이 남아 있습니다."

5·18 40주년. '선명하고 깊은 투명함으 로 남아 있는 이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 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음악으로, 그 림으로, 연극으로, 책으로 그들을 기억한

문 화

편 집 부 220-0649

다. 갤러리 '예술공간 집'에서 열리고 있 는 '강연균의 하늘과 땅 사이-5' (24일까 지)전이 기억하는 '그들'은 아련하다. 그 해 5월27일 YWCA를 사수했던 어느 시 민군의 모습은 철모 가득 고인 붉은 피와 먹다 남은 빵 한 조각으로 기억됐다. 항 쟁에 동착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울분을 토하고 분노하던 당시 한 사내의 모습은 '젊은이'라는 작품으로 기억됐다.

며칠 전 열린 5·18 40주년 기념식 헌정 공연 '내 정은 청산이요'의 애도 역시 오 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아카데미 수상작 영화 '기생충'의 음악을 맡은 정재일음악감독과장민 승 영화감독이 함께 만든 작품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과 '육자배기' '씻김 굿' 그리고 '랩' 등으로 구성된 음악과 옛 국군광주병원, 옛 광주교도소 등 항쟁의 현장들을 담아 마치 한 편의 현대미술 작 품처럼 구성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와 정 재일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는 이 작품 은 27일 하루(오전 11시, 오후 3시20분, 오후 7시20분) 광주극장에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미은 문화부장mekim@

(FA X 222-0195)

⟨FAX 222-0195⟩

⟨FAX 02-773-9335⟩

무 국 220-0551

光则日朝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FAX 222-8005⟩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편집국안내

치 부 220-063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부 220-0692 제 부 220-0663 부 220-0694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부 220-066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